



[장애인식개선교육] 세계 다운증후군의 날 안내

전주북초등학교
제 2025-33호
2025.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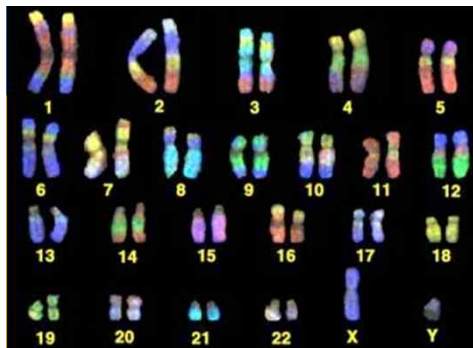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180 • 교무실 241-5949 FAX 241-5950

[장애인식개선] 세계 다운증후군의 날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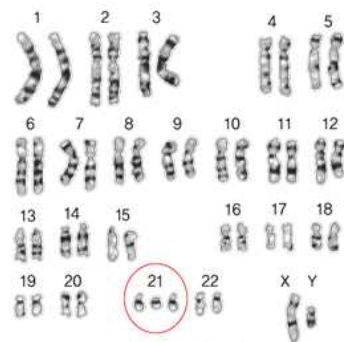
내일(3월 21일)은 세계 다운증후군의 날입니다. 다운증후군은 외형적인 특징이 도드라지고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UN은 다운증후군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리 옹호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3월 21일을 세계 다운증후군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왜 3월 21일이 세계 다운증후군의 날인가요?

다운증후군은 염색체를 하나 더 가지고 태어나 21번 염색체가 3개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반영해 바로 3월 21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양말 모양과 닮은 염색체가 짝이 없이 하나 더 있어서 다른 목이 긴 짝짝이 양말을 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짝짝이 양말을 신는 이유는 양말을 섞어 신으며 다름에 대해 이해하고 생각해 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의 염색체>



<다운증후군의 염색체>

세계 다운증후군의 날을 기념한 전주북초등학교의 다름다운 이벤트

다운증후군과 세계 다운증후군의 날에 대해 자녀에게 설명해주시고 뒷면의 『다운증후군의 오해와 진실』도 자녀와 함께 읽어주세요. 세계 다운증후군의 날 당일인 3월 21일, 짝짝이 양말을 신고 등교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3월 20일
전 주 북 초 등 학 교 장

다운증후군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김새가 모두 똑같다?

다운증후군으로 인해 공통적으로 외모적인 특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작고, 둥글고 납작한 얼굴, 낮은 코와 올라간 눈꼬리, 양 눈 사이가 멀어 보이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살펴보면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운인에게 다른 다운인과 닮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실례가 될 수 있는 행동이니 주의해주세요.

다운증후군은 자녀에게 유전이 된다?

다운증후군은 유전자의 변이와 이상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유전(genetic)질환이기는 하나 부모와 자녀 간에 특징을 이어받는 유전(inherited)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에 위와 같은 사실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다운증후군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업을 갖기 어렵다?

다운증후군에는 지적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에 고차원적인 작업을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것은 어렵지만 치료와 교육을 통해 베이킹, 커피 제조 등 반복되는 직무나 높은 사회성을 살린 서비스 업무 등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배우, 화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다운증후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곳에서 다운인들을 고용할수록 더 많은 다운인들을 일상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세계적인 음악가인 스티브 참여한 “The Hiring Chain” 캠페인 영상을 자녀와 함께 시청 부탁드립니다.